

12
2022

재외동포의



특집 _ 한국계 미국 하원의원 4명 모두 연임...미셸 스틸도 재선 성공
기획 _ "한국과 거주국 가교에 앞장"... 모국 온 고려인 기자들 다짐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 정책과 차세대 육성 방안' 포럼 개최
화제 _ '김치의 날' 맞아 미국 등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





- 04 특집 한국계 미국 하원의원 4명 모두 연임... 미셀 스틸도 재선 성공
- 06 기획 “한국과 거주국 가교에 앞장”... 모국 온 고려인 기자들 다짐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 정책과 차세대 육성 방안’ 포럼 개최
- 08 화제 ‘김치의 날’ 맞아 미국 등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
- 10 한민족 공감 칠레 수도 한복판에 ‘서울의 거리’ 조성... “숙원사업 이뤄”
벨기에서 ‘한식 열풍’ 선도하는 입양한인 셰프 박산호 씨
- 12 글로벌 코리안 윤송이 엔씨 사장·이민진 작가 등, 미주한인위원회 공로상 수상
미 조지아주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에 샘 박 의원
사할린 한인 귀국 앞장선 이희팔 선생 증언 담은 ‘유언’ 출간
- 14 유공 동포 ‘달은 어디에 떠 있는가’ 재외동포 최양일 영화감독 별세
- 15 주목! 차세대 재미동포 2세 제니 김, 포브스지 ‘내년 주목할 30인’에 선정
- 16 지구촌 통신원 룩셈부르크 6·25 참전용사 가족과 한국입양인 위한 ‘특별한 한 끼’
- 18 동포소식 “한국전 참전 미군 희생에 보은”... 미 동포들, 후손에 장학금 지급 외
- 20 문화유산 예산 수덕사와 수덕여관... 덕숭산이 품은 아름다움
- 22 OK! 뉴스 재외동포 기록물 통합 아카이브 구축 위한 전문가 세미나 열려 외
- 24 동포 캘린더 국회서 ‘재외동포 어린이 그림일기’ 대회 수상작 전시 외
- 25 기고문 사할린서 ‘무형 문화 유산’ 주제 한국어 말하기 대회
이복순 사할린 우리말방송국 기자
- 26 재단공지 2023년 한인회관 건립 예산지원 신청받습니다



발행인: 김성곤 등록번호: 문화-라 08249
 발행처: 재외동포재단
 본사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구 서귀포시 제2청사)
 전화: 82-64-786-0200, 팩스: 82-64-786-0239,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서울사무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타운 405호, 406호
 전화: 82-2-3415-0100, 팩스: 82-2-3415-0118,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조사부 prc@okf.or.kr 제작: 연합뉴스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외교부 산하 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계 미국 하원의원 4명 모두 연임... 미셸 스틸도 재선 성공

3선 1명, 재선 3명 탄생... 한미 관계에서 역할론 기대

지난 11월 8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 출마한 한국계 미국 연방하원의원 4명이 모두 연임에 성공했다. 개표 결과 앤디 김(40·민주·뉴저지)은 3선에 성공했고, 매릴린 스트리클랜드(59·민주·워싱턴), 영 김(59·공화·캘리포니아), 미셸 박 스틸(67·공화·캘리포니아) 의원 등 3명은 재선을 확정했다. 이로써 한인 사회는 이들이 미국 중앙 정치무대에서 '코리안 파워'를 더욱 확고히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앤디 김, 김창준 전 하원의원 이후 26년 만에 3선 달성

특히 앤디 김 의원은 '친 공화당' 지역으로 분류되는 뉴저지주 3선거구에서 공화당의 밥 힐리 후보를 꺾고 3선에 성공해 의미를 더했다. 한인 2세인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11월 공화당 현역 의원이었던 톰 맥아더에 신승을 거두고 연방의회에 처음 입성한 것을 시작으로 이번까지 내리 3차례 이겼다. 한국계 미 연방하원의원이 3선 고지에 오른 것은 1996년 김창준 전 하원의원 이후 26년 만에 처음이다.

김 의원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역임한 안보 전문가로 의회 입성 후에도 전공을 살려 하원 군사위원회와 외교위원회 등에서 활약했다. 아메리칸드림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히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몸담았던 '오바마 키즈' 중 한 명으로 중동 전문가이기도 하다.

지난해 1·6 미 의사당 난입 사태 직후에는 혼자서 쓰레기를 묵묵히 치우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전국구 정치인으로 인지도를 높였다. 중진 대열에 들어선 김 의원은 워싱턴 정가에서 목소리를 키우며 한국계 미국 정치인이 가보지 못한 길을 개척할 것으로 예상된다.



1

김 의원은 당선 확정 직후 지역 매체들에 배포한 성명에서 향후 포부와 관련, “의료비를 낮추고 인프라 투자를 정상 궤도에 올리며 봉사과 예의에 뿌리를 둔 정치를 향해 계속 일할 것을 고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장래는 밝다. 겸손과 봉사의 정신으로 지역구를 대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이름 '순자'로 잘 알려진 매릴린 스트리클랜드 의원과 영 김 의원은 다음 회기에서 재선 여성 의원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전망이다. 스트리클랜드 의원은 그동안 워싱턴주를 대표하는 첫 한국계이자 흑인 여성 의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당선 소감에서 “미국 사회에서 한국계 미국인의 목소리를 키우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목표”라며 “더 많은 미국인이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계이면서 동시에 아프리카계인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나는 어느 편을 선택하지 않는다”며 “난 어머니의 딸이면서 아버지의 딸”이라고 말했다. 스트리클랜드 의원은 6·25 한국전쟁에 참전한 아프리카계 미군과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영 김 의원은 친한파인 에드 로이스 전 하원의원 보좌관으로 20년 넘게 일하며 정치력을 키웠다. 그는 연방의회 입성 이후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활약하며 한미의원연맹 부활에 앞장섰고, 앞으로도 한미관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 출신으로 서울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



2

1. 11월 8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한국계 연방하원의원 4명(왼쪽부터 미셸 박 스틸, 매릴린 스트리클랜드, 영 김, 앤디 김 의원)
2.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3선 당선 소감 밝히는 앤디 김(가운데) 미국 연방하원의원
3. 지지자들에게 재선 성공 감사 인사하는 매릴린 스트리클랜드(왼쪽에서 4번째) 미국 연방하원의원
4. 지지자들에게 재선 감사 인사 전하는 영 김 미국 연방하원의원



3

1975년 가족과 함께 미국령 괌으로 건너가 중고교를 다닌 뒤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에 진학하면서 캘리포니아로 이주했다.

영 김 “남북 이산가족 상봉 시 미국 거주 한인 포함 추진”

그는 당선 소감에서 “유권자들이 지난 2년간 활동한 이력을 알아주신 것 같다”고 말한 뒤 “4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과 가스값 인상, 오렌지카운티의 높은 범죄율 등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많고 불편을 겪는 상황”이라며 “이런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법안을 상정해 냈고, 하나씩 해결해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미 국무부에 북한 인권특사 임명을 요구하고, 이산가족 상봉 시 미국에 거주 중인 한인들을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는 법안도 이미 마련한 만큼, 새 임기 동안 이를 현실화하는 데도 중점을 둘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주 45지구에 출마한 스틸 의원은 민주당의 제이 첸 후보 따돌리고 재선 고지를 밟았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의원은 1976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고, 1992년 로스앤젤레스(LA) 폭동 사태로 한인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고 정계 입문을 결심했다.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캘리포니아에서 공화당 소속으로 출마, 2006년 이후 이번 중간선거까지 6번을 내리 승리해 한인 사회에서 ‘선거의 여왕’이란 별칭을 얻었다. 그는 당선 소감에서 “저를 믿어준 유권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근로자 가정의 아메리칸 드림이 존속할 수 있도록 계속 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계 의원들의 역할과 관련해 “외교관처럼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를 통해 한미 동맹이 더 돈독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4

“한국과 거주국 가교에 앞장”... 모국 온 고려인 기자들 다짐

재외동포재단 언론인 초청 연수에 러·CIS서 6명 참가

“모국을 더 깊이 이해하면서 취재 실무도 배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거주국과 모국을 잇는 가교 역할에 앞장서겠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의 ‘재외동포 언론인 초청 연수’에 참여해 한 달간 교육을 받은 러시아·독립국가연합(CIS) 거주 기자들은 12월 8일 서울시 중구 페르타타워에서 열린 수료식에서 “진실을 추구하는 치열한 기자정신을 배운 게 큰 수확”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재단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의 고려인 기자 6명을 초청해 11월 11일부터 이날까지 연수를 진행했다. 기자들은 기사 작성과 사진 촬영법, 영상 편집 등 취재 실무를 배우고 저널리즘 등 이론 교육도 받았다. 청와대, 남산타워, 광화문 등을 둘러보며 서울 문화 탐방을 하고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해 전통문화도 체험했다.

러시아 ‘고려인 신문’의 스베틀라나 티안(41), 바조라 아르츨(21) 씨와 카자흐스탄 ‘코리아미디어리서치’의 허우마(20) 씨는 연합뉴스에서 일주일간 취재 실습 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경기도 안산시의 ‘뽕골’,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함박마을’, 광주광역시 ‘고려인마을’ 등을 방문해 모국에 정착한 고려인의 삶을 취재하기도 했다.

러시아 의회 출입 기자인 티안 씨는 “취재 소스에 대한 사실 확인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것이 인상 깊었다”며 “정보를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독자의 알권리를 중시하는 것을 보면서 저널리스트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시 새길 수 있었다”고 뿌듯해했다.



재외동포재단 초청으로 모국에서 한달간 연수를 마치고 12월 8일 수료식에 참석한 러시아·CIS지역 동포 언론인들이 김성곤 재단이사장(가운데)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청와대를 방문한 러시아·CIS 동포 언론인

항일 무장투쟁 김경천 장군 후손 “부끄럽지 않은 언론인 되겠다”

일제 강점기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벌여 수많은 전과를 올렸던 김경천 장군의 외고손녀이기도 한 허우마 씨는 “광주 고려인마을의 역사문화관에서 선조의 업적을 기리는 것을 보고 큰 자부심을 느꼈다”며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언론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고려인 4세인 아르츨 씨는 “2명의 고려인 희생자도 나온 이태원 참사 현장을 둘러보고 안타까웠다”며 “유가족을 위로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언론은 무엇을 보도해야 하는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는 “영상 취재를 맡고 있는데 연합뉴스TV를 견학하면서 방송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배운 게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고려인 기자들은 연수 기간 각자 프로젝트를 선정해 별도 취재도 진행했다. 이복순(46) 사할린우리말방송국 기자는 수료식에서 영주귀국 한 사할린 한인들의 집거지인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을 취재한 영상을 소개했다.

이 씨는 “모국 정부의 배려로 안락한 노후를 보내고 있지만 동반 입국 자녀의 제한으로 사할린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하는 모습에서 끝나지 않은 이산의 아픔을 느꼈다”고 안타까워했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전 세계에 흩어진 730만 재외동포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기 위해서는 동포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건강한 동포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기자 연수 등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 정책과 차세대 육성 방안' 포럼 개최

한-이스라엘 수교 60주년 기념해 국회의원회관서 열어



'한국·이스라엘 수교 60주년 기념 친선 포럼' 안내 포스터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 정책과 차세대 육성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을 12월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올해 한국-이스라엘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주한이스라엘대사관이 함께 참여했다.

포럼에서는 아키바 토르(Akiva Tor) 주한이스라엘 대사가 '이스라엘의 유대인 디아스포라 정책과 유대인 청년 모국 초청사업 사례'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으며, 두 번째 강연자로 나선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한국 재외동포 정책의 향후 과제와 차세대 교육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강연 후 임원정 공주대 한민족교육원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는 이스라엘 전문가인 최영철 성균관대 교수와 홍인화 전남대 박사, 청소년 전문가인 김경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박사와 김용대 한국청소년재단 상임이사가 참여했다.

김성곤 재단 이사장은 "이스라엘은 해외 유대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유대인 정체성 확립과 이스라엘과의 우호적 관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등 좋은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다"며 "이스라엘 사례를 통해서 한국의 재외동포 차세대 육성 정책과 사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 차세대의 한민족 정체성 및 자긍심 함양'을 기관의 핵심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위해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재외동포 청소년 초청 연수, 재외동포 장학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매년 시행해오고 있다. **창**



재외동포재단이 매년 개최하는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 모습

‘김치의 날’ 맞아 미국 등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

22개국 주요 도시서 관련 행사… 재외동포재단 후원

올해로 3회째를 맞은 ‘김치의 날’(11월 22일)을 계기로 재외동포들이 세계 각국에서 김치 담그기와 전시, 요리 경연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며 ‘K 김치’ 알리기에 앞장섰다.

재외동포재단 등에 따르면 세계 22개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22일을 전후로 ‘K 김치 세계연대’라는 이름으로 김치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재외동포재단과 현지 한국공관 등이 이들 행사를 후원했다.

‘K 김치 세계연대’는 한인들끼리만 모여서 김장을 하는 것에서 벗어나 현지인들을 초청해 김치를 소개하고 담그면서 민족과 인종 간 경계를 넘어 친선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이는 한국이 김치의 ‘종주국’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한국 김치를 세계적 음식으로 만들기 위해 민간 차원에서 벌이는 외교 활동인 셈이다.

미국 워싱턴DC 한인들은 19일(이하 현지시간) 개최한 김치나눔축제에 특별히 한인 입양인들과 국제결혼 여성을 초청했다. 한국 전통 게임과 한복 콘테스트도

마련해 한국 문화와 정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왔다. 앞서 디트로이트 한인회는 12일 ‘김치사랑 민족사랑’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김치나눔축제를 열었다. 사물놀이 공연, 김치 만들기, 만찬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한인들도 같은 날 축제에서 현지 재배 배추 1t을 사용했다. 축제 참여자로 선정된 현지인들에게 배추를 소금물에 절이고 양념하는 등 김치 담그기 전 과정을 전수했다. 베를린 한인들은 20일 베를린이 독일 통일을 상징하는 도시인 만큼 남북한 김치를 모두 담그고 맛보는 ‘남북 통일 김치’ 이벤트를 개최했다.

일본 오사카에서는 현지 인기 유튜브 채널 ‘오사카에서 사는 사람들 TV’를 통해 김치나눔축제 특집 방송했다. 중국 텐진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초청해 김치와 보쌈 수육 만들었다. 아르헨티나 한인 여성 봉사단체인 부인회는 20일 ‘한인의 날’ 행사에 맞춰 김치나눔축제를 개최했다. 10만 명 규모의 행사인 만큼 아르헨티나 김치의 날 제정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게 목표였다.

“김치는 서울푸드”… 미국 연방의회서 쏟아진 ‘김치 찬사’

12월 6일 낮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이 내려다보이는 미국 연방의회 도서관은 김치 냄새로 뒤덮였다. 과거에 하원의원 전용 열람실로 사용됐던 2층 멤





3



4

버스로에서, 연방의회 사상 처음으로 김치의 날 축하 행사가 열린 것이다.

행사장 초입에는 맛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 포기김치 등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김치 제품이 진열됐다. 그 옆으로는 배추, 고춧가루, 굵은 소금과 까나리액젓, 생강 등 김치를 담글 때 사용되는 재료들이 놓였다. 한쪽에서는 즉석에서 걸절이김치를 담그는 시연도 진행됐다.

행사장 가운데 마련된 연단에서는 지난 7월 하원에 발의된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에 참여한 하원의원들의 ‘김치 찬사’와 ‘김치 데이’ 제정 필요성에 대한 발언이 쏟아졌다. 이들은 12월 마지막 회의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가장 먼저 연단에 오른 미국 연방의회 아시아·태평양계 코커스 의장인 주디 추 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김치의 날 지정은 전국적으로 확인되는 김치의 인기를 조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국계 미국인의 미국에 대한 공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버지니아, 메릴랜드, 뉴욕, 캘리포니아, 워싱턴DC, 조지아주 등 많은 주(州)와 도시가 이미 김치의 날을 지정했으며 이제 미국이 따라갈 차례”라고 말했다.

한인인 앤디 김 하원의원(민주·뉴저지)은 “김치는 우리나라와 공동체, 유산의 일부이며 이는 한국계 미국인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인에게도 해당한다”면서 “우리는 우리 문화를 고양하고 우리가 미국인으로 이 나라에 속해 있다고 말하기 위해 여기에 모인 것”이라고 밝혔다.

김치 대미 수출 매년 사상 최대 기록 경신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런 움직임에 힘입어 올해 1~11월 대미 김치 수출액이 2천67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1.7%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물량으로는 7천991t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9.2% 늘었다. 연간 대미 김치 수출액은 2018년 900만 달러에서 2019년 1천480만 달러, 2020년 2천300만 달러, 지난해 2천820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서 김치의 날이 11월 22일로 정해진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김치의 재료 하나하나(11)가 모여 ▲면역력 증진 ▲바이러스 억제 ▲항산화 효과 ▲변비·장염 및 대장암 예방 ▲콜레스테롤 및 동맥경화 예방 ▲다이어트 효과 ▲항암효과 등 총 스물두 가지(22) 이상 효능을 낸다는 의미가 담겼다.

2007년 사단법인 대한민국의 김치협회에서 11월 22일 ‘김치의 날’을 선포한 뒤 2020년 2월 국회가 ‘김치 산업진흥법’에 근거해 법정기념일로 제정했다. 김치의 날은 식품으로서 유일하게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참**

1. 미국 연방의회 도서관에서 12월 6일(이하 현지시간) 열린 ‘김치 데이’ 행사에서 앤디 김 하원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 미국 연방의회 도서관에서 열린 ‘김치 데이’ 행사에서 참석하 하원의원들이 김치로 만든 요리를 접시에 담고 있다.
3. 11월 19일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카운티에서 K-김치세계연대 워싱턴DC위원회 주최로 열린 김치나눔축제에서 참가자들이 김장을 하고 있다.
4. ‘제 3회 김치의 날’ 기념해 세계 각국에서 열린 김치나눔축제 안내 포스터

칠레 수도 한복판에 ‘서울의 거리’ 조성… “숙원사업 이뤘”

한덕수 총리는 앞서 10월 현지 방문해 관련 조형물 제막

남미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 한복판에 '서울의 거리'가 조성됐다. 주칠레 한국대사관(대사 황경태)은 11월 11일(현지 시간) 레콜레타구(區)의 옛 상업지구 중 한 곳인 파트로나토(Patronato)에서 서울의 거리 공식 선포식을 열었다. 한국·칠레 수교 60주년을 맞아 명명된 서울의 거리는 식당, 잡화, 의류, 섬유·원단 등을 판매하는 한국인 운영 점포 300여 곳이 밀집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일대를 명품 거리로 만들어 보자’는 한인 동포들의 뜻을 황경태 대사가 지난 2월 다니엘 하두에 레콜레타 구청장과의 면담 과정 중 전달했고, 이후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24일 거리명 변경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었다고 대사관 측은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산티아고도 어려웠던 시기에 한인들이 마스크를 나눠주는 등 현지인에게 많은 도움을 준 것이 주민 동의를 받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사는 “칠레 한인 이민 52년 역사 숙원사업을 이뤘다”며 “한류 확산과 한인 동포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북도립국악원의 사물놀이 공연도 마련돼 현지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앞서 10월 11일에는 칠레·우루과이·아르헨티나 등 남미 3국을 방문 중이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산티아고 웨라톤호텔에서 진행한 동포·지상사 대표들을 위한 만찬에서 ‘서울의 거리’ 조형물을 제막한 바 있다. [▶](#)



1



2

- 11월 11일(이하 현지시간)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 열린 ‘서울의 거리’ 공식 선포식에서 황경태 대사(왼쪽에서 네 번째), 다니엘 하두에 레콜레타 구청장(왼쪽에서 세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세 번째)가 10월 11일 칠레 수도 산티아고의 웨라톤호텔에서 동포·지상사 대표들을 초청해 연 만찬 간담회에서 ‘서울의 거리’ 조형물을 제막한 뒤 참석자들과 함께 손뼉을 치고 있다.

벨기에에서 ‘한식 열풍’ 선도하는 입양한인 셰프 박산호 씨

한식당 운영하며 한식 반찬 워크숍 개최... 한국 상품점도 오픈

K-팝과 K-드라마를 통해 벨기에에서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지에서 한식 열풍을 이끄는 입양 한인 셰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주인공은 1973년 2월 18일 마산애리원 보육시설 입구에서 발견돼 6개월 뒤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벨기에에 입양된 박산호(산호 박 코렌원 · 52) 씨.

그는 2018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친부모를 찾기 위해 관계 기관을 뛰어다니고, 언론에 자신을 알리는 등 큰 노력을 했다. 현재 현지에서 한식당 ‘타브로도’를 운영하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식을 알리는 등 한식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다.

벨기에에서 활동 중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의 고소영 해외통신원은 최근 박 씨의 한식 열정에 대해 조명했다. 고 통신원에 따르면 ‘벨기에입양인협회’ 부회장이인 박 씨는 벨기에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앤트워프에 한식 레스토랑 “타브로도”를 창업해 운영하고 있다.

이 식당은 현지 한식 애호가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식당 리뷰에는 “정성을 다해 만든 요리로 맛있다”, “최고의 경험으로 엄청나게 맛있고 양도 매우 많다” 등의 평가가 올라온다.

2018년부터 뿌리 찾기 나서... “못 찾은 아쉬움 한식 알리며 달래”

그는 한식당을 차리기 전 김밥, 떡볶이 등을 파는 한식 스낵 푸드트럭을 운영했다. 당시 현지 언론은 그를 여러 차례 소개했었다. 이달 초 한국의 전통 장을 활용한 ‘한식 반찬 워크숍’을 열기도 했다.

박 씨는 “뿌리를 찾지 못한 아쉬움을 한식을 알리면서 달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앤트워프 중앙역 중심부에 한국 상품점 ‘숍도’(Shop d’Ho)를 열었다. 식료품과 과자, 음료수는 물론 K팝 굿즈, 한국 화장품 등 다양한 한국 제품을 판매한다. 벨기에에서 한국 문화 관련 제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고 통신원은 분석했다.

벨기에 유력 매거진 ‘크낙 포커스’는 최근 주말판에서 ‘무엇이 한식을 이렇게 인기 있게 만들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박 씨와의 인터뷰를 실었다. 이 매거진은 “중국, 태국, 베트남, 일본 음식을 거쳐 지금은 한식이 대세”라면서 “한국 문화 열풍은 한국인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시작해 대서양 건너까지 그 영향을 미쳤으며, 한식의 부상은 한국 문화에 의해 독특한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썼다. 그러면서 그룹 BTS, ‘오징어 게임’ 등의 한국 드라마, 오스카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영화 등이 한식의 열풍을 이끌었다고 소개했다. **[참]**



1



2



3

1. 벨기에 앤트워프에서 한식 반찬 워크숍을 개최한 박산호 셰프 (오른쪽)
2. 박산호 씨를 소개한 벨기에의 유력 매거진 ‘크낙 포커스’
3. 2018년부터 친부모를 찾고 있는 박산호 씨

윤송이 엔씨 사장·이민진 작가 등, 미주한인위원회 공로상 수상 루시 고 미 연방고법 판사·카메룬계 미국인 아프리카 윤도 포함



윤송이(47) 엔씨소프트 사장, 재미교포 이민진(54) 작가, 루시 고(54·한국 이름 고혜란) 제9연방고법 판사, 아프리카 윤(44) 블랙유니콘 최고경영자(CEO) 등 4명이 미국 내 한인 단체로부터 공로상을 받았다.

미주한인위원회(CKA)에 따르면 공로상은 미국 사회에 기여하고 한인의 위상을 높인 사람에게 준다. 시상식은 11월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콘래드호텔에서 열렸다.

윤 사장은 '임파워 상' (Empower Award)을 받았다. 지역 사회에서 뛰어난 리더십과 봉사 정신을 보여준 사람에게 주는 상이다. 윤 사장은 지난 22년간 하이테크,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사업에서 쌓은 경력을 토대로 뛰어난 성과를 내면서 젊은 아시아계 미국인과 전문가들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현재 엔씨소프트 최고전략책임자(CSO)이면서 엔씨웨스트홀딩스 CEO, 엔씨문화재단 이사장도 맡고 있다.

소설 '파친코'를 쓴 이민진 작가는 한인 사회의 목소리와 영향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아 '보이스 앤 리더십 상' (Voice & Leadership Award)을 수상했다. 위원회는 이 작가는 작품을 통해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관점을 재구성하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종종 직면하는 보이지 않는 문제들에 도전하는 데 큰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고 판사는 '트레일블레이저 상' (Trailblazer Award)을 받았다. 새로운 길을 연 개척자에게 주는 상으로, 고 판사는 아시아계 여성들이 미국 사회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 판사는 연방고등법원 첫 한인 여성 판사, 연방지방법원 첫 한인 판사,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첫 아시아인 판사 등의 기록을 세웠다.

카메룬계 미국인으로 한국계 미국인과 결혼한 아프리카 윤은 '임브레이스 유니티 상' (Embrace Unity Award)을 받았다. 민족과 인종 간 경계를 넘어서는 통합의 역할을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작가, TV쇼 진행자, 사회활동가인 윤은 교육, 빈곤, 인종 차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을 알리는 문화 엔터테인먼트 기업 블랙유니콘을 이끌면서 한식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코리아 쿠킹 프렌즈'를 운영 중이다.

미 조지아주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에 샘 박 의원 한인 2세로 첫 아시아계 원내대표... 2016년부터 내리 4선 성공

미국 조지아주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에 한인 2세인 샘 박(37) 의원이 선출됐다. 11월 23일(현지시간) 박 의원의 트위터와 현지 동포연론에 따르면 조지아주 하원 민주당은 2023~2024년 2년 간 원내대표로 박 의원을 뽑았다.

박 의원은 트위터에서 "조지아주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계 미국인 지도자 자리에 올라 자랑스럽고 영광스럽다"며 "세계 신뢰와 지지를 준 의회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



했다.

그는 조지아주립대와 같은 대학 로스쿨을 졸업한 뒤 아메리칸대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변호사 출신이다. 앞으로 주의회의 입법 활동을 이끌고 소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과 결의안의 세부 사항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그는 2016년 주 하원의원에 처음 당선돼 눈길을 끌었으며, 12월 8일 중간선거까지 내리 4선에 성공했다. 정계에 입문하게 된 구체적 계기로는 2014년 어머니의 말기 암 진단을 꼽았다.

박 의원은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어머니가 암과 싸우고 아파할 때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생사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며 “모든 조지아인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싸워야 했다”고 말했다.



사할린 한인 귀국 앞장선 이희팔 선생 증언 담은 '유언' 출간 강제징용 한인 문제 해결 위해 한일서 활동한 기록 소개

일제 패망 후 옛 소련(현재 러시아) 사할린에 남겨진 한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선 고(故) 이희팔(1923~2020) 선생의 증언과 관련 자료를 담은 '유언' (도서출판 품)이 최근 출간됐다.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된 조선인 연구에 앞장서 온 일본인 나가시마 시게루(長澤 秀)가 고인이 생전 10여 년간 한 구술을 기록하고 자료를 정리했다.

이 선생은 1943년 사할린으로 건너가 탄광에서 일하다가 해방을 맞았다. 일제 패망 후 소련이 사할린을 영토로 편입시키자 사할린에 남아있던 조선인과 일본인의 대부분은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억류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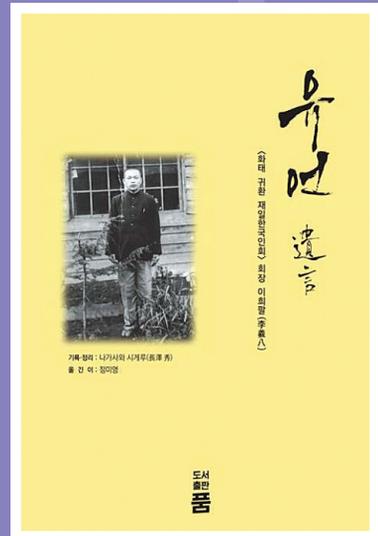
1956년 소련과 일본의 국교가 정상화되면서 일본인이 송환되자 일본인을 부인으로 둔 일부 한인도 일본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들 가운데 일부가 '화태(樺太·사할린의 일본 식 이름 가라후토를 우리말로 음역한 것) 귀환 재일한국인회'를 만들었고 그는 이 단체 회장으로 활동했다.

이 회장은 당시 일본에서 사할린 한인과 한국 가족 간의 서신 배달부 역할을 맡았고, 귀환 희망자 명부를 작성해 한국과 일본 정부에 보냈다. 이들의 귀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재판 투쟁을 전개하기도 했다.

'유언'은 1923년 경북 영양에서 태어난 그가 성장해 사할린으로 건너온 이야기, 탄광 생활과 일본인 여성과의 재혼, 일본으로 건너온 후 '화태 귀환 재일한국인회' 결성과 활동 등을 담고 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사할린 잔류 조선인 귀환 청구 소송 관련 문서와 귀환 운동에 참여했던 초창기 인사들도 소개한다.

책 발간을 위해 모금 운동을 전개했던 지구촌동포연대 관계자는 “사할린 한인의 존재와 조국에 돌아오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쳤던 기록을 담은 책으로, 한인 역사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달은 어디에 떠 있는가’ 재일동포 최양일 영화감독 별세

향년 73세... 2005년 일본 아카데미상 최우수 감독상 수상



최양일 재일동포 영화감독

‘달은 어디에 떠 있는가’, ‘피와 뼈’ 등의 작품으로 재일동포 이야기를 생생하게 그려낸 최양일 재일동포 영화감독이 11월 27일 향년 73세로 별세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최 감독이 이날 방광암으로 도쿄 자택에서 숨졌다고 보도했다.

1949년 일본 나가노현에서 재일 조선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최 감독은 도쿄조선중고급학교를 졸업하고 영화계에 뛰어들었다. 최 감독은 일본 뉴웨이브 영화의 기수 오시마 나기사 감독이 연출한 ‘감각의 제국’의 조감독으로 연출 수업을 받는 등 현장 경험을 쌓았다. 이후 1983년 ‘10층의 모기’로 데뷔한 그는 ‘달은 어디 떠 있는가’ (1993), ‘막스의 산’ (1995), ‘피와 뼈’ (2004) 등 10여 편에 이르는 영화를 만들며 일본 영화를 대표하는 작가로 떠올랐다. 사회 주변부를 훑는 서늘한 시선과 비정한 인물들을 담은 그의 영화는 일본 리얼리즘 영화의 수작으로 손꼽힌다.

데뷔작 ‘10층의 모기’가 베네치아국제영화제에 소개된 이후 최 감독의 영화는 국제적으로도 시선을 꾸준히 끌었다. 대표작은 1993년 연출한 ‘달은 어디에 떠 있는가’로 역시 재일동포 출신인 양석일 작가의 소설 ‘택시 광고곡’을 스크린에 옮긴 작품이다. 도쿄에서 택시 기사로 일하는 재일동포 청년이 필리핀 여성을 만나 사랑하는 등 일본 사회의 다양한 하층민의 삶을 진지하면서도 코믹하게 그려내 호평을 받았다.

일본 국민 감독이자 배우인 기타노 다케시가 출연한 2004년 작품 ‘피와 뼈’에서 최 감독은 일본에서 성공하는 꿈을 꾸며 10대 중반 제주도에서 일본 오사카로 건너온 남자의 일생을 통해 인간과 가족관계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던졌다.

2007년에는 지진희와 강성연이 주연을 맡은 첫 한국 영화 ‘수’도 연출했다. 그는 재일교포라는 정체성 때문인지 국외자의 시선으로 일본 사회를 바라보는 영화를 많이 만들었다. 2011년 네덜란드 로테르담영화제에서는 그의 회고전이 열리기도 했다.

2004년부터 18년간 일본영화감독협회 이사장을 맡은 최 감독은 영화 저작권을 감독이 갖도록 하는데 애썼으며 표현의 자유 신장을 위해서도 큰 노력을 기울였다. 2005년에는 ‘피와 뼈’로 일본 아카데미상 최우수 감독상을 받았다. 



2008년 10월 6일 부산에서 열린 제13회 부산국제영화제(PIFF) ‘ABC 단편영화’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양일 감독(가운데)이 다른 감독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재미동포 2세 제니 김, 포브스지 '내년 주목할 30인'에 선정 틱톡 북미 매니저로 파트너사들과 협업에 기여한 공로



포브스의 '2023년 주목할 30세 미만 기업인 30명'에 선정된 제니 김씨(포브스 제공)



재미동포 2세 제니 김(한국명 김수현·27) 씨가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최근 선정한 '2023년 소셜미디어 분야 주목할 30세 미만 30명'(30 Under 30 In Social Media 2023)에 포함됐다.

포브스 홈페이지와 미주중앙일보에 따르면 김씨는 현재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북미지역 매니저로 일하고 있다.

포브스는 월 이용자가 각 10억 명이 넘는 넷플릭스, NBC 유니버설, 디즈니 등 주요 엔터테인먼트 파트너사와 틱톡이 협업하는 데 기여했다며 그를 30명 중 한 명으로 뽑았다. 30명 중 한인은 김씨가 유일하다.

포브스는 또 김 씨가 틱톡이 빌보드, 그라미 어워드, 에미상 측과도 협업하고 새로운 사용자들을 플랫폼으로 이끄는 데도 큰 성과를 올렸다고 선정 이유를 꼽았다.

김 매니저는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한 뒤 페이스북에 입사해 근무하다 2019년 틱톡으로 이직했다. 그는 12월 15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리는 포브스 시상식에 참여할 예정이다.

김씨의 아버지 마이크 김 씨는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을 맡는 등 어렸을 때부터 도전정신이 넘치고 리더십이 뛰어난 아이였다"며 "젊은 나이에 이런 큰 상을 받은 것이 자랑스럽고 기특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

룩셈부르크 6·25 참전용사 가족과 한국입양인 위한 ‘특별한 한 끼’

양국 수교 60주년 맞아 현지서 민간단체 주관 한식 행사 열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전란 중에도 먹을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던 ‘한국 이모’들에 대해 얘기하곤 했어요.”

11월 5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 시내에 있는 한 연회장에 마련된 한식 만찬장. 처음은 아니지만, 오랜만에 한식을 먹는다는 데니즈 부흐홀츠(60) 씨는 6·25 전쟁 참전용사인 부친 고(故) 길버트 부흐홀츠(1928~2012년) 씨로부터 생전에 들은 일화를 떠올렸다.

그는 “아버지가 정작 전투 현장에서 겪은 일은 단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는데, 친절했던 한국인들의 얘기는 정말 많이 하셨다”며 “‘세월이 지나면 아빠도 다 잊혀질 거다’라는 자식들의 얘기에는 ‘한국인들은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라며 반박하곤 했다”며 웃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우리 아버지를 비롯한 참전용사를 잊지 않고 기억해주는 한국인들에게 정말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나라 면적이 제주도의 1.4배가량인 룩셈부르크는 6·25 전쟁 당시 인구가 20만 명 내외였지만, 100% 자원병으로 구성된 100여 명을 낳은 한국 땅으로 파병한 나라다. 절대 규모는 작지만, 인구당 파병 규모로 환산하면 전체 22개 참전국 중 최고 수준이라고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전했다.

룩셈부르크는 1950년 10월 1일 지원병 48명으로 1개 소대를 편성해 벨기에군 대대 A 중대에 편입시켜 참전했다. 이렇게 편성된 벨기에-룩셈부르크군 대대(Bel-Lux 대대)는 한국 지형과 유사한 곳에서 훈련을 마치고 12월 18일 벨기에 안베르를 출발, 1951년 1월 31일 부산에 상륙했다.

룩셈부르크 소대는 1951년 1월 31일~1951년 8월 25일 활동한 제1차 분견대와 1952년 3월 28일~1953년 1월 7일까지의 제2차 분견대로 구분된다. 학당리전투와 잣골전투(지금의 철원) 등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으며, 2명이 전사하고 13명이 다치는 희생이 있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참전용사 중 현재 3명만 생존해있다.



한인입양인 10여 명 포함 현지인 100여 명 참석... 한식 금방 동나

이날 만찬은 한국과 룩셈부르크 수교 60주년을 맞아 현지인들에게 한식을 알리는 한편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자는 취지에서 민간단체가 기획한 ‘코리아 위켄드’(Korea Weekend) 행사의 일환이다.

현지 단체인 한국의친구들협회(Les Amis de la Coree)와 한식진흥원(이사장 임경숙) 해외 교류 공모사업에 선정된 문화교류 단체인 코레그라피협회 한국본부가 협업해 마련했다. 사전 신청을 받아 현지인 100여 명 정도가 참석했고, 부흐홀츠 씨를 비롯한 참전용사 유가족들도 일부 참석했다. 다만 행사에 초대된 생존 참전용사 3명은 건강 문제로 자리하지 못했다고 주최 측은 전했다.

만찬 메뉴는 빈대떡, 김치, 불고기, 제육볶음, 버섯전, 잡채를 비롯해 각종 나물 반찬과 쌀밥. 행사장을 가득 채운 매콤한 양념 냄새에 ‘과연 외국인들이 이것 좋아할까’ 하는 기자 편견을 비웃기라



2

도 하듯 메뉴는 순식간에 대부분 동이 났다.

시뻘건 걸절이김치를 “매운 샐러드 같다”며 여러 번 리필해 밥도 없이 단품으로 먹는 참석자도 눈에 띄었다. 전통 한식을 접할 기회가 적었던 현지인들은 후식으로 준비된 오미자차, 수정과, 한과, 양갱에도 엄지를 치켜세웠다.

이날 만찬장의 또 다른 특별 손님은 다름 아닌 룩셈부르크에서 자라난 한인 입양인들이었다. 현장에는 10명 정도 참석했지만, 1980년대를 전후로 룩셈부르크로 입양된 한인 규모는 수백 명이라고 한다.

1987년 생후 4개월에 지금의 가정으로 입양됐다는 베로니쿠 미희 빌헬름(35·한국명 정미희) 씨는 “아이를 원했던 양부모님이 원래는 인도에서 아이를 입양하려 했는데, 인도는 수년을 기다려야 했던 반면 한국 아이는 ‘바로 입양’이 가능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만큼 당시 해외 입양을 기다리는 한국 영아가 많았다는 얘기가 나온다. 빌헬름 씨보다 먼저 같은 가정에 입양된 그의 오빠 역시 한국 출신이다. 빌헬름 씨는 룩셈부르크에 있는 한인 입양인 교류를 위한 비영리 단체도 직접 운영 중이라면서 “어렸을 때는 정체성 문제로 힘들었지만, 이제는 룩셈부르크인이자 동시에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한국의친구들협회 측은 이날 만찬을 시작으로 임경숙 한식진흥원 이사장의 ‘발효음식 세미나’, 현지 고등학생 대상 한식 요리 체험, 김치를 활용한 디너 아틀리에 등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장]**

정빛나 연합뉴스 벨기에 브뤼셀 특파원



3



4

1. 11월 5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코리아 위켄드’ 개막행사에서 참석자들이 한국 음식을 먹기 위해 줄을 서 있다.

2.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코리아 위켄드’ 일환으로 열린 만찬 행사 모습

3. 임경숙 한식진흥원 이사장(왼쪽)이 룩셈부르크에서 ‘코리아 위켄드’ 개막행사에서 6·25 참전용사 유가족인 테니즈 부흐홀츠(중앙) 자매에게 선물을 증정하고 있다.

4.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코리아 위켄드’ 개막행사에 참석한 베로니쿠 미희 빌헬름(사진 오른쪽 두 번째) 씨를 비롯한 한인 입양인들과 그 가족들

“한국전 참전 미군 희생에 보은”... 미 동포들, 후손에 장학금 지급

참전용사기념비위원회, 내년부터 10명에 2천 달러씩 전달

재미동포 단체가 한국전에 참전한 미군 용사들의 희생에 보은하기 위해 그들의 후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OC) 플러턴 힐 크레스트 공원에 'O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건립한 참전용사기념비위원회(위원장 노명수)는 최근 회의를 열고 기념비 건립 후 남은 40만 달러(약 5억4천740만 원)를 종잣돈으로 장학 사업을 펴기로 했다고 11월 10일 밝혔다.

장학위원장을 맡은 박윤숙 화랑청소년재단 총재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내년부터 한국전 참전용사 후손 10명을 선정해 각 2천 달러(약 273만 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념비 건립 당시 국내 독지가를 비롯해 현지 50개 주 동포들은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160만 달러(약 21억9천만 원)를 마련했고, 기념비 건립에 120만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OC) 플러턴 힐 크레스트 공원에 세워진 'OC 한국전참전용사 기념비'

달러(약 15억6천만 원)를 사용했다.

장학생은 현지 재향군인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을 통해 선발하고, 장학금은 한국전쟁 발발일인 6월 25일 또는 미국 재향군인의 날(11월 11일)에 전달할 계획이다.

노명수 위원장은 “한국전 당시 수많은 미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해 한국을 지켰다.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지속해서 기억하고, 보은하기 위해 후손에게 장학금

을 주기로 했다”며 “기금 고갈에 대비해 장학금 추가 유치와 조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전용사기념비위원회에는 강석희 전 어바인시장, 기념비위원회 사무총장을 맡았던 박동우 전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위원, 안영대 전 OC한인회장, 기념비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배기호 OC장로협의회 수석부회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아중동 한상연합회 · 한인회총연합회, 사업전략 공유 심포지엄 개최

주제는 ‘아프리카 · 중동 비즈니스 진출 현황과 과제’

아프리카 · 중동한상연합회와 아프리카 · 중동한인회총연합회가 국회에서 심포지엄을 열고 현지에서의 사업 전략 등을 공유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11월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아프리카 · 중동 비즈니스 진출 현황과 과제’란 주제로 열렸다.

아중동한상연합회와 아중동한인회총연합회가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 주최했으며, 재외동포재단과 한 · 아프리카재단이 후원했다. 여운기 한 · 아프리카재단 이사장이 기조 강연을 맡았으며, 아중동한상연합회 김채수 회장과 이소현 사무총장, 진윤석 차세대위원장 등은 현지 비즈니스 진출 사례와 과제 등에 관해 패널 발제에 나섰다.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보츠와나 가보로네 지회장이기도

한 김채수 회장은 “현지에서 수십 년간 사업을 하며 얻은 답은 지속성과 기다림이었다”며 “모든 프로젝트와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는 중간에 포기하면 안되며, 모든 것을 잘 마무리했다고 하더라도 결과를 기다리면서 조용히 마케팅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아중동한인회총연합회는 2008년 창립돼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한인들의 교류 허브 역할을 해왔다. 2016년에는 한상(韓商)의 구심점 역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아중동한상연합회가 별도로 결성됐다.



아중동 한상연합회 · 한인회총연합회 심포지엄 안내 포스터

호주 시드니에 '한국 정원' 생긴다... NSW 주정부 발표

1만3천500m² 규모... "세계 최대 한국 정원 될 것"

2000년 시드니 하계올림픽 개최를 기념해 조성된 64만3천m² 규모의 호주 올림픽공원 안에 '한국 정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호주 동포 매체인 톱뉴스는 11월 11일 앤서니 로버츠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정부 기획·가정부 장관의 발표를 인용해 "올림픽공원 부지 안에 '한·호주 우정의 정원'을 건립한다"고 전했다.

로버츠 장관은 "이 정원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한국 정원이 될 것"이라며 "주 정부 예산으로 정원을 조성하며 곧 올림픽공원관리청(SOPA)과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



앤서니 로버츠 NSW주 기획·가정부 장관(오른쪽 다섯 번째)과 함께한 한호커뮤니티포럼 관계자들(톱뉴스 제공)

했다. 한국 정원은 SOPA 부지 내 1만3천500m² 정도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스트라스필드 골프클럽에서 한호커뮤니티포럼(회장 옥상두)이 주최한 '한·호주 커뮤니티 우정의 밤' 행사에 참여해 이같이 밝혔다.

한호커뮤니티포럼은 그동안 '한·호주 우정의 정원 건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해 SOPA 측과 소

통하면서 준비를 해왔다. 추진위는 한인 1.5세인 김수진 건축가와 그가 수석 소장인 '아키텍처 사빌레 아이작스'(ASI) 사에 설계를 의뢰했다.

김의진 중국 조선족 기업가, 재외동포재단에 희귀도서 670권 기증

조선족 언어 연구 등에 참고 자료로 활용

중국 조선족의 우리말 관련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희귀도서들이 공개된다. 재외동포재단은 11월 15일 제주도 서귀포 본사에서 '김의진 북경조선족기업가협회 명예회장 도서 기증식'을 개최했다.

김 명예회장은 재중동포 사회 연구에 보탬이 되고자 현지에서 한글로 발행한 인문, 사회, 경제, 문화 분야 도서 670권을 기증했다. 이 책들은 그가 1950년부터 수집한 희귀 도서가 대부분이다.

재중동포 언어의 변천사를 확인할 수 있는 조선족 어휘 표현 분류집, 논문집 등 연구 가치가 높은 문헌들도 포함됐다. 이 도서들은 재단 자료실에 비치되며 조선족 언어 연구 등에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북경조선족기업가협회의 설립자인 김 명예회장은 재중동포 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8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김성곤 재단 이사장은 "조선족은 한중수교 30년간 양국 관계 증진에 건인차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한 뒤 "조선족 근·현대사



재외동포재단 제주 본사에서 열린 '북경조선족기업가협회 김의진 명예회장 도서 기증식' 장면 (왼쪽부터 김성곤 이사장, 김의진 명예회장)

의 한 퍼즐을 맞출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기증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명예회장은 "평생 사명감으로 수집해온 도서가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중국 조선족을 알리는데 필요한 문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수덕사와 수덕여관... 덕숭산이 품은 아름다움

충남 예산군 덕산면 덕숭산 남쪽 자락에 자리 잡은 수덕사는 사계절 여행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절이다. 단순하면서도 절제된 기품이 느껴지는 대웅전부터 예술가들의 사연을 간직한 수덕여관, 고승(高僧)의 자취가 깃든 산속 초당과 암자에 이르기까지, 이야기거리와 볼거리가 넘친다.

예술가들의 숨결이 서린 수덕여관

수덕사 일주문을 지나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은 절집이 아닌 초가집이다. '수덕여관'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이 집은 한국 근현대를 대표하는 예술가들의 사연이 얽히고설킨 곳이다. 1896년 생 동갑내기인 김일엽과 나혜석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신여성들이었다.

하지만 시대를 너무 앞서갔던 것일까? 세상은 이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기자와 문인으로 활약했던 김일엽은 사랑과 이별을 거듭하다 1933년 홀연 수덕사로 출가했다. 최초의 여류 서양 화가로 이름을 날렸던 나혜석이 김일엽을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4년 뒤다.

김일엽을 통해 수덕사의 만공 스님에게 귀의를 요청했지만 만공 스님은 "중노릇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한다. 미련이 남았던 나혜석은 수덕여관에 머물며 그림을 그리고 가르쳤다. 이때 수덕여관으로 나혜석을 찾아온 이가 고암 이응노 화백이다. 나혜석으로부터 예술을 배운 이응노는 나혜석이 여관을 떠나자 1944년 아예 여관을 매입했다.

이곳에 머물며 수덕사의 아름다운 풍경을 화폭에 담기도 했던 그는 1959년 부인을 수덕여관에 남기고 연인과 함께 파리로 훌쩍 떠난다. 부인을 버리고 떠난 이응노가 수덕여관을 다시 찾은 것은 1967년 동백림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뒤다. 홀로 수덕여관을 꾸리며 살았던 이응노의 전처는 돌아온 그를 정성껏 돌봤다고 한다.

여관 뒤뜰의 바위에 새겨진 그림은 이때 이응노가 남긴 암각화다. 글자 모양이기도 하고 사람 모양이기도 한 것이 역동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는 이 바위 그림만을 남긴 채 다시 파리로 훌쩍 떠나버렸다.



1



2



3

절제된 기품 느껴지는 수덕사 대웅전

수덕여관을 뒤로 하고 금강문과 사천왕문을 지나면 오른쪽에 만공기념관이, 왼쪽에는 만공 스님이 세운 7층 석탑이 자리하고 있다. 백제 시대 사찰인 수덕사는 근대 한국 불교에 선풍(禪風)을 진작시킨 경허 스님과 그 법맥을 이은 만공 스님이 머물며 한국 불교를 중흥시킨 도량이다.

선원(禪院)과 강원(승가대학 또는 승가대학원)을 모두 갖추고 있는 조계종의 5대 총림 중 하나이기도 하다. 성보박물관이 자리한 누각 '황하정루'를 지나 계단을 오르면 두 개의 탑 너머로 대웅전이 모습을 드러낸다.

고려 충렬왕 때(1308년) 세워진 수덕사 대웅전은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목조 건축물로 꼽힌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우직함과 절제된 기품이 느껴진다. 대웅전의 묘미는 맞배지붕에 있다. 맞배지붕은 지붕이 건축물의 앞면으로만 맞붙어 있는 형태를 말한다. 전통 기와 건물의 지붕 가운데 가장 단순한 형식이다. 배흘림기둥들이 든든히 받쳐주고 있는 수덕사 대웅전의 맞배지붕은 간결하면서도 힘이 넘친다. 단청이 벗겨진 기둥들은 깊게 팬 나뭇결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700년 세월의 흔적이 느껴진다.

고승의 자취가 깃든 덕숭산

수덕사를 찾을 때는 대웅전 뒤로 솟은 덕숭산도 빼놓지 말아야 한다. 산속 곳곳에 숨어 있는 암자와 석불에 고승의 자취가 진하게 배 있다. 대웅전 왼편 관음 바위를 지나면 등산로가 시작된다. 산속 암자인 정혜사로 향하는 이 길에는 1천80개의 돌계단이 있다. 수덕사 2대 방장인 벽초스님이 놓은 것이다. 인간의 백팔번뇌를 열 번 내려놓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4

청량한 물소리를 따라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네 개의 면에 불상을 조각한 석불이 나온다. 1983년 예산군 봉산면 화전리에서 발견된 백제 시대 유일의 사면석불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라고 한다. 사방에 약사불, 아미타불, 석가모니불, 미륵존불이 조각돼 있다.

다시 돌계단을 한참 오르면 산 중턱에 초가집이 나타난다. 만공 스님이 머물렀던 소림초당이다. 소림초당과 암자 향운각, 정혜사, 관음보살입상... 그의 공이 아닌 게 없다.

만공이 세운 암자 향운각 인근에는 수덕사를 내려다보고 서 있는 거대한 석불이 있다. 1924년 만공 스님이 조성했다는 관음보살입상이다. 자연석을 깎아 만든 것으로 높이가 7.58m에 달한다. 만공 스님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만공탑 바로 위에는 정혜사가 있다. 수덕사의 말사인 정혜사는 만공 스님이 주석하며 선풍을 진작시킨 곳이다.

지금도 철마다 수십 명의 스님이 수행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원이다. 가파른 비탈에 집체만 한 바위를 끼고 있는 정혜사는 덕숭산 최고의 조망처로도 꼽힌다. 대웅전에서 정혜사까지 돌계단을 오르는 데 40분가량 걸렸다. 정혜사를 지나 15분가량 산길을 더 오르면 정상이다.

해발 495m인 덕숭산 정상에 오르자 시원한 전망이 펼쳐졌다. 탁 트인 예당평야가 한눈에 들어오고 저 멀리 안면도, 천수만까지 보인다. 발밑으로는 수덕사의 절집 지붕이 작은 점처럼 까마득하다. 정상에서 한숨 고르고 다시 산에서 내려온다. 대웅전 앞에 도달하니 어느새 해가 누엇누엇 지고 있었다. **창**

- 1. 수덕사 일주문 지나면 보이는 수덕여관
- 2. 수덕여관 뒤뜰에 남아 있는 이응노 화백 암각화
- 3. 수덕사 전경 가운데 대웅전이 보인다.
- 4. 만공스님이 조성한 덕숭산 관음보살입상

재외동포 기록물 통합 아카이브 구축 위한 전문가 세미나 열려

재외동포재단은 기관별로 산재한 재외동포 관련 기록물의 통합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전문가 세미나를 11월 18일 개최했다. 재단은 120년 한민족 이주역사 경과에 따라 사라져가는 재외동포 관련 기록물을 수집·보조하기 위해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 서귀포시 재외동포재단 본사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공공기관의 유사 사례를 청취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순서가 마련됐다. 독립기념관, 국립국악원, 국회도서관 기록보존소, 공무원연금공단, 병무청, 제주 4·3 평화재단, 증평기록관, 서울기록원, 아동권리보장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국학진흥원 등 11개 기관의 기록관리 담당자가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통합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조직이 필요하며,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제주에서 열린 재외동포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공공기관 전문가 세미나 장면

이영근 재외동포재단 기획이사는 “급격하게 소멸하는 재외동포 관련 기록물의 수집 및 활용을 서두르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식 공유 및 아카이브 구축 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 사이버대에 한글학교 교사 편입과정 개설



재외동포재단이 지난 8월 시행한 '2022 한글학교 교사 온라인 연수'에서 참가자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은 각국 한글학교 교사들의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을 돕기 위해 경희사이버대, 고려사이버대,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사이버한국외대, 세종사이버대, 원광디지털대, 송실사이버대 등 7개 사이버대학의 한국어학과에 3학년 편입과정을 개설했다.

120명을 선발해 수업료 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 과정을 마치면 학사학위와 함께 국립국어원의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자세한 사항은 스테디코리아 사이트 (<https://mstudy.korean.net>)를 참조하면 된다.

‘한글날 기념 온라인 시화 공모전’ 대상에 재미동포 최예린 학생

재외동포재단은 올해 처음 실시한 ‘한글날 기념 온라인 시화 공모전’에서 재미동포 최예린(14) 학생이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1월 25일 밝혔다.

한글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되새기기 위해 재외동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번 공모전에는 52개국 191개 한글학교에서 2천800여 작품이 접수됐다.

재단은 이들 작품 가운데 미국, 필리핀, 튀르키예 등 27개국 61개 학교 학생이 보낸 103편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미국 찬양한국문화학교 재학생인 최 양은 ‘한글’이라는 작품에서 비단옷과 흰 웃을 입는 두 어린이가 한글을 통해 벗이 되는 과정을 잘 표현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심사위원들은 “일상생활에서 숨바꼭질하듯이 표현한 한글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와 그림이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고 평가했다.

김성곤 재단 이사장은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한글에 대한 사랑과 배움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도록 한글학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수상작은 12월 9일부터 재외동포 학습 사이트인 스테디코리아(<https://mstudy.korean.net/>)에서 공개됐다.



재외동포재단의 ‘한글날 기념 온라인 시화전’ 공모에서 대상을 수상한 재미동포 최예린 학생의 작품 ‘한글’

재외동포재단 자료실 추천 도서



일본에서 살기

이흥매 / 북코리아

재중 동포들의 역사는 150여 년을 훌쩍 넘었다. 이들 집단에 대한 기록은 행정적 입장에서 문헌으로 보존·관리돼 왔으나, 개인의 삶을 낱알이 살펴보는 기록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이민자이면서 신문기자로 살아온 재외동포의 눈으로 중국과 일본에서 체험한 삶의 현장을 그린 도서가 발간됐다. 저자는 한국과 일본, 중국에서의 삶의 현실을 생생하게 관찰하고 일상의 기쁨과 슬픔을 글로 펼쳐냈다. 더불어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재일 동포 사회의 리더들과 경계의 문학을 천착해온 오무라 마스오 교수, 이케다 스미에 선생의 인터뷰도 책에 수록했다. 가까우면서도 낯선 재외동포의 생활을 수필이라는 장르를 통해 만나보고 작가의 세계와 감수성을 공유해보자.



상처받은 인간다움에게

박정은 / 한빛비즈

미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인간에 대해 질문을 하고 답하기를 10여 년 동안 해오던 박정은은 현대인의 민낯을 드러냈던 지난 3년간의 현상에 대해 수녀이자 학자의 눈으로 들여다본 도서를 발간했다. 이 책 ‘상처받은 인간다움에게’의 저자인 그는 미국에서 아시아 여성이자 이방인의 살아왔던 경계의 사람들과, 현대사회의 풍요와는 반대로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소외를 보면서 인간다움에 대해 질문을 했다. 현대화되고 기술적으로 완벽해지는 사회 안에서 인간의 외면과 내면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가 가져야 할 의식은 무엇인지 고민해보자.





국회서 '재외동포 어린이 그림일기' 대회 수상작 전시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은 '2022년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 대회' 수상작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전시했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국회교육위원장상,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이사장상을 비롯한 입상작으로 중국, 파라과이, 스페인 등 14개국 어린이가 작품을 소개했다. 임영담 재단이사장은 "재외동포 어린이들의 한국어·한국 역사에 대한 솔직한 마음과 사랑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상작은 재단 누리집(www.ikefkids.kr)에서도 감상할 수 있다.

일본 오사카서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등재 5주년 특별전

일본 오사카한국문화원은 조선통신사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5주년을 맞아 1607년부터 1811년까지 12회에 걸쳐 통신사의 일본 방문 기록을 소개하는 특별전을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개최 중이다. 특별전에서는 양국 간 우호 교류를 펼쳤던 통신사 행적을 알리는 그림, 서적 등 관련 유물과 시민단체의 활동사진 등이 전시된다. 11월 26일에는 오사와 켄이치(大澤研一) 오사카역사박물관장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조선통신사 활동의 의미를 소개하는 심포지엄도 열렸다.



'크리스마스 전사들의 합창'... 광주 고려인어린이합창단 공연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고려인 마을의 어린이합창단(단장 김혜숙)은 12월 7일 광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제2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크리스마스 전사들의 합창'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크리스마스 캐럴과 러시아·한국 민요, 동요, 뮤지컬 합창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꾸며진다. 김미옥 펠리체 솔리스트 예술감독의 사회로 메조소프라노 강양은·신은정, 베이스 김일동, 소프라노 장희정, 바리톤 김치영·송태왕, 피아니스트 김은희 등이 특별 출연한다. 2017년에 창단한 이 합창단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의 고려인 자녀와 우크라이나 탈출 고려인 등 25명이 단원으로 활동한다. 지금까지 각종 축제와 문화예술 행사에서 70여 차례 축하 무대를 열어 고려인의 정서를 국내에 알리고 있다.

'캄보디아 안전여행 핵꿀팁'... 한인회, 식당 등 리플릿 비치

캄보디아 여행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리플릿이 현지 주요 시설과 장소에 비치됐다. 캄보디아 한인회(회장 정명규)는 최근 '캄보디아 안전여행 꿀팁' 리플릿 2만 부를 제작해 한국인 방문객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과 장소에 비치했다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 지원과 현지 대사관 협조를 제작된 리플릿에는 프놈펜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와 함께 대사관, 병원, 현지 경찰 연락처 등이 담겼다. 또 한인회가 24시간 자체 운영 중인 교민안전지원단(단장 전범배)의 QR코드도 표기됐다. 이곳에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면 실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마약 범죄 등 캄보디아 주요 사건 유형과 함께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 사건·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등도 상세히 정리해놨다.



상하이 한인들 최대 축제 '한풍제'... 올해는 영화와 함께

중국 상하이(上海) 한인들의 최대 축제인 '한풍제'가 올해는 영화제와 나눔 플리마켓으로 열렸다. 현지 한국사회(한국인회)와 한인여성네트워크 공감은 11월 12일 진후이난루 알레그레 1~2층에서 '한중수교 30주년, 영화가 있는 한풍제'라는 주제로 2022년 한풍제를 열었다. 올해 행사는 코로나19로 지친 상하이 한인들을 위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억해야 역사가 된다'라는 테마의 영화제에서는 '코코순이'와 '미스타는 여자들'이 상영됐다. 나눔 플리마켓은 20여 개 부스에서 마련됐다. 추동 의류와 건강식품, 주방용품, 소형가전, 도서, 보이차, 화장품 등을 선보였다.

한인회·한글학교 등 동포단체 행사를 소개합니다. 널리 알리고 싶은 소식을 이메일(pro@okf.or.kr)로 보내주세요

사할린서 ‘무형 문화 유산’ 주제 한국어 말하기 대회

미래 한러 우호 협력관계 이끌어갈 인재들의 경연장

러시아 사할린국립대학교의 전통적 행사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지난 11월 개최됐다. 이 대회는 20년 넘게 해마다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 대회 주제는 ‘무형 문화 유산’이었다. 러시아가 2022년을 자국에 거주하는 민족들의 무형 문화 유산의 해로 선포했기 때문이다.

대회는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중학생 참가자들은 한민족 무형 유산 중 김장, 강강술래, 탈춤 3가지 가운데 하나를 골라 시로 읊었다. 중학생 부문에는 총 24명이 참가했으며, 심사위원들은 한국어 발음과 억양, 태도, 창의성 등을 고려해 엄정하게 평가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부문은 에세이 발표 외에 심사위원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있었다. 참가자들은 고사성어, 한국 음식, 한국 문화, 전통 노래 등을 통해 다양하게 주제에 접근했으며, 질문에 대한 답변 점수도 평가에 포함됐다. 참가자들은 파워포인트(PPT)를 활용해 발표를 하고 배경음악을 틀 가운데 시를 낭독했으며, 한민족 전통무용을 선보이기도 했다.

사할린국립대 어문·역사·동양학 대학의 임 엘비랄 학장은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해마다 확대 시행되며, 이 행사에는 사할린 주민들뿐만 아니라 러시아 다른 지역에서도 큰 관심을 두고 있다”며 “이 행사는 사할린주 교육부의 행사 목록에도 포함돼 있다”라고 전했다.

중학생 참가자인 아야나 우르만크베코바는 “나는 한국 문화, K-팝, 드라마를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라고



이복순
사할린 우리말방송국 기자

한국어를 접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사할린국립대 한국어과 2학년 학생인 아나스타시야 그리고리에바는 “내가 한국 문화를 어떻게 접했는지에 대해 에세이를 발표했다”며 “나는 한인이 아니며, 어머니는 니브흐 소수민족이고 아버지는 러시아인이다. 어머니가 사할린에서 한국인과 함께 살면서 한국문화를 잘 알고 있고 나에게도 한국 전통과 문화를 소개해줬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 최우수상의 영예는 흠스쿠시 한글학교의 주 콘스탄틴 학생이 차지했다. 그는 ‘지즉위진간’(知卽爲眞看, 아는 만큼 제대로 보인다) 한자 성어를 주제로 에세이 발표를 했는데

내용이 깊고 좋아 심사위원들의 후한 점수를 받았다. 그는 얼마 전 KBS 한민족 라디오방송 공모전에서 2차례 수상하기도 했다. 주 콘스탄틴은 한국 유학을 꿈꾸고 있으며 전공은 의학으로 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할린주 ‘한국어 말하기 대회’는 사할린주 정부와 주유즈노사할린스크 대한민국출장소, 사할린국립대학교 어문·역사·동양학 대학 동양학부가 매년 주최해오고 있다.

박상태 주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출장소 소장은 “한국과 러시아는 오랜 우호 교류의 역사가 있는, 매우 중요한 협력 동반 관계이다. 한국어 학습자들은 미래 한러 우호 협력관계를 이어갈 소중한 인재들이며, 양국 관계의 가교 역할을 할 자산이다”고 강조했다. 사할린주 교육부 아나스타시야 키르테와 장관은 “한국의 문화, 교육, 예술에 대한 사할린 청소년들의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장]



2023년 한인회관 건립 예산지원 신청받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전 세계 한인회를 대상으로 '동포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한인회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 지원 신청을 12월 5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받습니다.

한인회관 건립, 매입, 개보수, 증·개축 등이 지원대상으로, 동포사회 자체 노력으로 총사업비의 50% 이상이 확보됐고 2023년도에 완료 가능한 사업이어야 합니다.

예산 지원 신청서는 코리아넷(<https://www.korean.net/portal>)

/index.do)과 관할 공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명의거나 수익 또는 채무 상환 목적, 분규단체 추진 사업, 자체 재원 50% 미만 등과 관할 공관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사이트(https://www.okf.or.kr/homepage/business/business_notice.do?mode=view&articleNo=1001214336&article.offset=0&articleLimit=10#/list)를 참조하십시오.

2022년 12월 재외동포재단 임원 동정

김성곤 이사장

- 12월 1일: 한-이스라엘 수교 60주년 친선 포럼 참석
- 12월 8일: '재외동포 언론인 초청 연수' 수료식 및 환송오찬 참석
- 12월 15일: '국내 영주 귀국 사할린 동포 연말 위문품 전달식' 참석



750만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하나로 통하는 첫 번째 온라인 세상 코리아넷

코리아넷 회원에 가입하시면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단체,
재단 지원사업 등 관련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지원 사업



단체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지원



재외동포
뉴스





세계 시민과 함께

한민족 공동체를
구현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관

재외동포재단, 세계 75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